

군무원 필기 + 면접 전문 대장부 학원
국어 강사 양향근 해설

<http://www.daejangbu.com/>

문 1. 밑줄 친 부분의 맞춤법이 올바른 것만 고르시오.

- ㉠ 우리는 넙따란 바위 위에 자리를 잡았다.
 ㉡ 밀가루 반죽을 홍두깨로 넓적하게 편다.
 ㉢ 손흥민 선수는 매일 반복되는 생활에 실증을 느낀다.
 ㉣ 그 집 지붕에는 얇다란 함석판들이 이어져 있었다.
 ㉤ 그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굶다란 눈물을 뚝뚝 흘렸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해설] 정답 ③

- ㉠ 기본형이 '넙따랴다', 따라서 활용형인 '넙따란'은 올바르다.
 ㉡ 기본형이 '넓적하다', 따라서 활용형인 '넓적하게'는 올바르다.
 ㉢ 기본형이 '굶다랴다', 따라서 활용형인 '굶다란'은 올바르다.
 < 오답 해설 >
 ㉣ 문맥상 '실증'이 맞다. 실증: 실은 생각이나 실은 반응.
 실증: 확실한 증거.
 ㉤ 기본형이 '얇다랴다', 따라서 활용형은 '얇따란'이 알맞다.

문 2.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공통적인 속성은 무엇인가?

불휘 기픈 남근 브래 아니 뭇씨, 꽃 도코 여름 하느니
 시미 기픈 므른 브래 아니 그출씨, 내히 이러 바래 가느니
 < 용가 2장 >
 를 깊고 비 업건마른 하늘히 넉실씨 물 톤자히 건너시니이다
 城 높고 드리 업건마른 하늘히 도복실씨 물 톤자히 느리시니이다
 < 용가 34장 >
 님그미 賢커신마른 太子를 물 어드실씨 누른 남기 니려시니이다
 나라히 오라건마른 天命이 다아갈씨 이른 남기 새 뵈 나니이다
 < 용가 84장 >

- ① 초성종성통용팔자(初聲終聲通用八字)
 ② 종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
 ③ 초성독용팔자(初聲獨用八字)
 ④ 종성독용팔자(終聲獨用八字)

[해설] 정답 ②

지문에 밑줄 친 부분을 통해 공통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은 종성부용초성이다.

훈민정음이 창제된 15세기에 끝소리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을 쓰는 8종성법이 있었다. 그러나 용비어천가는 8종성법을 지키지 않고 'ㅈ, ㅊ, ㅍ, ㅌ' 등의 종성도 썼다.

종성부용초성은 종성은 새로 만들지 않고 이미 만든 초성을 다시 쓴다는 뜻이다. 초성은 'ㄱ, ㅋ, ㅇ, ㄷ, ㅌ, ㄴ, ㅂ, ㅍ, ㅁ, ㅈ, ㅊ, ㅅ, ㅎ, ㅇ, ㄹ, ㅅ'의 17개.

- ① 초성종성통용팔자: 초성과 종성으로 두루 쓰이는 글자 8자.
 'ㄱ(기역/其役)·ㄴ(니은/尼隱)·ㄷ(디귤/池末)·ㄹ(리을/梨乙)·ㅁ(미음/眉音)·ㅂ(비읍/非邑)·ㅅ(시옷/時衣)·ㅇ(이응/異凝)'
 ③ 초성독용팔자: 초성으로만 쓰고 받침으로는 쓸 수 없는 8자
 'ㅋ(키/箕)·ㅌ(티/治)·ㅍ(피/皮)·ㅊ(지/之)·ㅈ(치/齒)·ㅊ(치/齒)·ㅊ(치/齒)·ㅎ(히/屎)'

< 우리말 풀이 >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므로,
 꽃이 좋게 피고 열매가 많습니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물이 끊어지지 않으므로,
 냇물이 되어 바다로 흘러갑니다.

< 2장 >

강물은 깊고 배는 없건마는 하늘이 명하시매 (금나라 태조는)
 말 탄 채로 (그 깊은 강을) 건너신 것입니다.

성은 높고 사닥다리는 없건마는 하늘이 도우시매 (태조는)
 말을 탄 채로 (그 높은 성을) 내리신 것입니다.

< 34장 >

임금이 어지시건마는 태자를 못 얻으시매 누운 나무가 일어서다.
 나라가 오래건마는 하늘의 명 다해가매 이운 나무에 새 앞이 나다

< 84장 >

문 3. 다음 중 줄여서 쓸 수 있는 말은 무엇인가?

- ① 바뀌었다.
 ② 품중이어요.
 ③ 줄어들었습니다.
 ④ 다투었군요.

[해설] 정답 ④

표준어 규정 26항을 통해 '이다'의 어간 뒤에 '-에요', '-어요'가 붙은 '-이에요'와 '-이어요'의 쓰임을 보면

1. 받침이 없는 체언에 붙을 때는 '-이에요', '-이어요'와 이것 이 줄어든 '-에요', '-여요'가 모두 가능.

예) 무지개이에요, 무지개이어요, 무지개에요, 무지개여요

2. 받침이 있는 체언에 붙을 때는 '-이에요', '-이어요'의 형태.

예) 품중이어요, 책이어요

한글 맞춤법 제35항 모음 'ㅛ, ㅜ'로 끝난 어간에 어미 '-아/-어'가 붙어서 'ㅛ/ㅜ'로 줄어지는 것은 'ㅛ/ㅜ'로 적는다.

따라서, '다투었다' -> '다뤘다'

'바뀌었다'는 어간 '바뀌-'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었-'과 종결 어미 '-다'가 결합한 형태로 줄여서 쓸 수 없다.

문 4. 다음 중 로마자 표기가 올바른 것만 고르시오.

김치 Kimchi 설날 seollal 왕십리 Wangsimni 벚꽃 beotkkot
 불국사 Bulguksa 속리산 Songnisan 대관령 daegwalryeong

- ① 김치 Kimchi 왕십리 Wangsimni 대관령 daegwalryeong
 속리산 Songnisan 설날 seollal
 ② 설날 seollal 왕십리 Wangsimni 대관령 daegwalryeong
 속리산 Songnisan
 ③ 설날 seollal 속리산 Songnisan 왕십리 Wangsimni
 벚꽃 beotkkot

- ④ 설날 seollal 속리산 Songnisan 왕십리 Wangsimni
대관령 daegwarlyeong

[해설] 정답 ③

로마자 표기 규정에 따라 식생활 용어, 의생활 용어, 주생활 용어, 명절과 풍습, 놀이와 무예와 관련된 단어들은 모두 첫 글자를 소문자로 적는다. 따라서 설날 역시 첫 글자를 소문자로 적는다. 설날[설:랄] seollal 김치[김치] gimchi, kimchi
대관령[대:괘:령] Daegwallyeong 속리산[송:니:산] Songnisan
불국사[불:국:사] Bulguksa 벚꽃[번:꼇] beotkkot
왕십리[왕:십:리] Wangsimni

- 문 5.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한자성어는 무엇인가?

과연 노파는 한 푼이라도 더 돈으로 바꾸고 싶은 노파심에서였을 것이다. 먹지도 않고 그 곁에서 () 하는 나에게 하나쯤 먹어 보는 것도 좋다, 그리고 먹음직하거든 제발 좀 사달라고 얼굴은 울음 반 웃음 반이다.

- ① 小貪大失
② 寤寐不忘
③ 十匙一飯
④ 垂涎萬丈

[해설] 정답 ④

지문의 작품은 이상의 수필인 '모색'이다. '모색'이라는 뜻은 '해 질 무렵의 경치'란 뜻이다. 이 작품은 시골장터에서 어린아이와 그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여인, 그리고 그들 곁에서 머루와 다래, 복숭아 등을 팔고 있는 노파의 모습을 도시인의 시선으로 그린 작품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한자성어는 수연만장(垂涎萬丈)이다.

수연만장: 침을 만 길이나 흘린다는 뜻, 몹시 탐냄.

- ① 소탐대실(小貪大失):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음.
② 오매불망(寤寐不忘): 자나 깨나 잊지 못함.
③ 십시일반(十匙一飯): 협동, 협력

- 문 6. 한국어를 기술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닌 것은?

- ① 훈몽자회
② 한불자전(韓佛字典)
③ 말모이
④ 큰사전

[해설] 정답 ①

- ① 조선 중종 22년(1527)에 최세진이 지은 한자 학습서로 어린이들의 한자 학습을 위하여 만든 한자교학서다.
② 한불자전은 1880년 파리외방선교회 한국선교단에서 한국어를 불어로 풀이한 사전이다. 우리말의 단어를 한글로 제시하고 그 발음을 로마자의 대문자로 적고 있다. 한불자전은 한국어를 모르는 프랑스인들을 위해 한국어를 알려주는 한국어-프랑스어 사전이다.
③ 말모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사전.
④ 큰사전: 한글 학회가 편찬한 우리말 사전. 1929년에 시작하여 1957년에 완간.

- 문 7. 보기와 같은 높임법이 쓰인 것은 무엇인가?

<보기> 아버지께서 쓰시던 물건을 그 분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 ① 누나가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② 선생님은 제가 여쭙었던 내용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③ 아버지께서 제게 용돈을 주셨습니다.
④ 어머니께서 방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해설] 정답 ②

보기에는 주체높임(께서, 쓰시던)과 객체높임(께, 드리다), 상대높임(-습니다)이 사용됐다.

모두 동일하게 사용한 것은 ②번이다.

주체높임(선생님, 계셨습니다) 객체높임(여쭙었던) 상대높임(-습니다)

- 문 8. 다음 중 문장의 배열이 알맞게 된 것은 무엇인가?

(가) 비자의 생명은 유연성이란 특질에 있다. 한번 균열이 생겼다가 제 힘으로 도로 유착·결합했다는 것은 그 유연성이란 특질을 실제로 증명해 보인, 이를테면 졸업 증서이다. 하마터면 목침같이 될 뻔했던 불구 병신이, 그 치명적인 시련을 이겨내면 되레 한 급(級)이 올라 특급품이 되어 버린다. 재미가 깨를 볶는 이야기다.

(나) 반면이 갈라진다는 것이 기약치 않은 불측(不測)의 사고이다. 사고란 어느 때 어느 경우에도 별로 환영할 것이 못 된다. 그 균열(龜裂)의 성질 여하에 따라서는 일급품 바둑판이 목침(木枕)감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큰 균열이 아니고 회생할 여지가 있을 정도라면 형겅으로 싸고 뚜껑을 덮어서 조심스럽게 간수해 둔다(갈라진 균열 사이로 먼지나 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단속이다.).

(다) 1년, 이태, 때로는 3년까지 그냥 내버려 둔다. 계절이 바뀌고 추위, 더위가 여러 차례 순환한다. 그 동안에 상처났던 바둑판은 제 힘으로 제 상처를 고쳐서 본디대로 유착(癒着)해 버리고, 균열진 자리에 머리카락 같은 희미한 흔적만이 남는다.

(라) 비자반 일등급 위에 또 한층 뛰어 특급품이란 것이 있다. 반재며, 치수며, 연륜이며 어느 점이 일급과 다르다는 것은 아니나, 반면에 머리카락 같은 가느다란 흉터가 보이면 이게 특급품이다. 알기 쉽게 값으로 따지자면, 전전(戰前) 시세로 일급이 2천 원(둘은 따로 하고) 전후인데, 특급은 2천 4, 5백 원, 상처가 있어서 값이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비싸진다는 데 진진(津津)한 묘미가 있다.

- ① 라 - 나 - 가 - 다
② 라 - 나 - 다 - 가
③ 나 - 라 - 가 - 나
④ 나 - 가 - 라 - 다

당찮다(당하지 않다) 그렇잖은(그렇지 않은) 달갑잖다(달갑지 않다)
 올곧잖다(올곧지 않다) 올곧찮다(X)

[14-16]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고음역이 깨끗하게 들리는 CD는 저음역의 음악 정보를 제대로 담지 못하는 반쪽짜리 그릇이기 때문이다. '양자화(quantize)'라고 불리는 디지털화 과정에서 저음역의 주파수가 아주 미세한 ㉠ 근삿값으로 바뀌는데, 그 순간 다른 음으로 변화된 저음이 화음과 어울리지 않게 되어 버린다. 배음(倍音)과 화음의 바탕을 이루는 베이스음이 변동되는 순간, 조화를 이루어야 할 음악의 구조는 기초부터 흔들리게 된다. 왜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걸까?

(나) 왜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걸까? 디지털화의 기본 처리 과정에서 충분한 해상도가 확보되지 않을 때, 음악 정보가 원본과 다른 근삿값으로 바뀌어 기록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수점 한 자리까지 처리할 수 있는 성적 시스템에서 89.4와 95.5는 0.1의 작은 차이를 보이는 점수이다. 그런데 만일 소수점을 처리하지 못하는 시스템이라면 어떻게 될까? 89.4점은 근삿값인 89점이 되고 89.5점은 근삿값인 90점이 된다. 작은 차이의 점수가 '수'와 '우'라는 현격한 차이의 점수로 바뀐다. 해상도가 떨어지는 디지털 변환은 이처럼 매우 미세한 차이를 차원이 다른 결과로 바꿔 버리는 문제를 안고 있다.

(다) 디지털의 오류는 44.1kHz, 16비트 해상도의 '작은 그릇'인 CD가 안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다. 잡음 없는 깨끗한 소리를 전달한다는 장점과는 달리, 음악의 전체적인 조화를 무너뜨릴 수 있는 커다란 오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CD의 편의성에 찬사를 보내면서도 음악성에는 불합격점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다.

CD의 사운드는 충분하지 못한 해상도의 디지털이 갖는 단점을 명백하게 드러낸다. 해상도 낮은 사진에서 불분명한 화소가 뭉뚱그려져 보이는 '깍두기 현상'이 나타나듯, 클래식 음악에 사용되는 악기들의 섬세한 사운드에 담긴 미묘한 변화와 표정, 다이내믹, 특징적인 공명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다.

(라)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제2번 '부활'의 서주부와 같이 더블베이스의 저음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연주를 CD와 LP로 비교하여 들어 보면, 저음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때 오케스트라의 사운드가 얼마나 빈약하게 느껴지는지 잘 알 수 있다. 정확한 저음을 바탕으로 하모니를 만들어 가는 클래식 음악을 CD로 듣고 있으면, 마치 모래 위에 지어진 집처럼 위태롭고 불안한 느낌이 들곤 한다.

- 출처: 레코드의 비밀 -

문 14. ㉠과 같은 사이시옷 구성은 무엇인가?

- ① 시냇물 ② 조갯살
③ 전셋집 ④ 두렛일

[해설] 정답 ③

㉠ 근삿값(近似값)[근사값] 한자어 + 고유어, 된소리

- ① 시냇물[시:넌물] 고유어 + 고유어, 'ㄴ'이 덧남
② 조갯살[조개살] 고유어 + 고유어, 된소리
③ 전셋집(傳貰집)[전세집] 한자어 + 고유어, 된소리
④ 두렛일[두렌닐] 고유어 + 고유어, 'ㄴ'이 덧남

문 15.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CD는 고음역을 잘 표현한다.
② CD는 44.1kHz, 16비트 해상도라는 단점이 있다.
③ LP와는 다르게 CD에서 저음을 들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불안한 느낌을 준다.
④ 양자화는 소수점 한 자리까지 처리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④

지문에서 CD는 양자화, 디지털화 과정에서 소수점을 정확하게 읽지 못한다고 나온다.

문 16. 다음 글의 설명 방식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 ① (가)와 (나)는 원인과 결과의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② (나)와 (다)는 수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③ (다)와 (라)는 CD의 장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④ (가), (다), (라)에는 은유와 직유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설] 정답 ④

(가)는 현상의 결과이며 (나)는 그 원인이다.

(가) (다) (라)의 전개방식에는 은유와 직유가 사용됐다.

문 17. 다음 중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 ① 그쪽으로 갈까요? 어젯밤에 갔던데요.
② 모르겠던데요.
③ 왔던데요.
④ 아프던데요.

[해설] 정답 ①

'데'가 의존 명사로 쓰이면 '곳'이나 '장소'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① 번은 '곳'/'장소'의 의미. 의존 명사로 띄어 써야 한다.
'데'가 붙여 쓰기할 때는 과거 어느 때에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현재의 말하는 장면에서 그대로 옮겨 와서 말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일 때다.

문 18. 다음 중 현대어로 번역이 잘못된 것은?

- (가) 毗盧峯(비로봉) 上上頭(상상두)의 올라 보니 그 뉘신고
(나) 東山(동산) 泰山(태산)이 어느야 놉듯던고
(다) 넓거나 넓은 天下(텐하) 엇씨혀야 적당 말고
(라) 오르디 못헐거니 느려가미 고이흘가

- ① 비로봉에 올라보니 그대는 누구이신가?
② 동산과 태산은 어느 것이 높은가?
③ 넓거나 넓은 천하를 왜 작다고 했는가?
④ 오르지 못했으니 내려감이 무엇이 이상하겠는가?

[해설] 정답 ①

‘비로봉에 올라 본 사람이 누구이신가?’ 올바른 해석이다.

< 작품 해설 >

1. 갈래: 기행가사, 정격가사(일정한 규격을 따르는 가사), 양반가사
2. 창작연대: 45세에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 선조 13년(1580년)
3. 사상적 배경 : 유교 충의사상, 도교 신선사상
4. 강호가도(江湖歌道)의 전통
 - 상춘곡 → 면앙정가 → 관동별곡, 성산별곡
5. 표현
 - (1) 감탄사, 대구, 적절한 생략법 구사
 - (2) 전체 분위기가 명쾌하고 호탕한 기상이 잘 나타남.

관동별곡은 조선 선조 13년(1580)에 송강 정철이 45세 되는 해에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3월에 관동 팔경을 두루 유람하고서 그 경치와 산수, 풍경과 고사, 풍속 등을 읊은 가사다. 관동별곡은 조선시대 가사 문학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속종 때 김만중은 ‘서포만필’에서 우리나라 참 문장 BSET3를 <관동별곡>, <사미인곡>, <속미인곡> 세 편이라고 칭송하기도 하였고 그중 ‘속미인곡’을 최고로 뽑았다.

문 19. 회의 의안 심의 과정 올바른 것?

- ① 제출 - 상정 - 제안설명 - 질의응답 - 찬반토론 - 표결
- ② 제출 - 상정 - 제안설명 - 찬반토론 - 질의응답 - 표결
- ③ 제출 - 찬반토론 - 상정 - 제안설명 - 질의응답 - 표결
- ④ 제출 - 제안설명 - 상정 - 찬반토론 - 질의응답 - 표결

[해설] 정답 ①

해당 문제는 선지의 첫 번째 순서가 모두 ‘제출’였다. 그 다음부터 순서에 맞게 과정을 고르면 되는 문제다.

올바른 회의 순서는

개회 -> 보고사항 제출 -> 상정 -> 제안설명 -> 질의응답 -> 찬반토론 -> 표결 -> 폐회

문 20. 다음 중 맞춤법이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 ① 밤을 새서라도 일을 끝마치겠다.
- ② 자꾸 밤새지 마라, 몸 축날라.
- ③ 밤샘 보람이 있다.
- ④ 몇 밤을 뜬눈으로 새웠다.

[해설] 정답 ④

- ① 밤을 새서라도 일을 끝마치겠다. -> 새워서라도
- ② 자꾸 밤새지 마라, 몸 축날라. -> 밤새우지 마라
- ③ 밤샘 -> 밤새운 보람이 있다. 기본형은 ‘밤새우다’
- ④ 맞는 표현

문 21. 다음 중 두음법칙 구성이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 ① 공+염불
- ② 신+년도
- ③ 강수+량
- ④ 비구+니

[해설] 정답 ②

‘신년도’는 그 발음 형태가 [신년도]이다. ‘신년+도’로 분석되는 구조이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년도는 한 단어가 아니다. 나머지 선지는 모두 한 단어.

문 22. 다음 중 엄마의 고생을 나타낸 시어가 아닌 것은?

열무 삼십 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 틈으로 고요한 빗소리
빈 방에 혼자 었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 ① 열무 삼십 단을 이고
- ② 해는 시든 지 오래
- ③ 찬밥
- ④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해설] 정답 ③

③ 찬밥은 엄마가 아닌 어린 시절 가난했던 화자의 서글픈 모습을 비유한 시어다.

< 작품 해설 >

- 작가: 기형도(奇亨度), (1989)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회상적, 감각적, 서사적
- 심상: 시각, 촉각, 청각적 심상
- 주제: 장에 간 엄마를 걱정하고 기다리던 어린 시절의 외로움.

문 23. 다음 중 ‘배춧잎 같은 발소리’와 동일한 수사 기법은?

- ① 고요한 빗소리
- ② 내 유년의 윗목
- ③ 해는 시든 지 오래
- ④ 찬밥처럼 방에 담겨

[해설] 정답 ④

배춧잎 같은 발소리 - 직유법

- ① 고요한 빗소리 - 청각적 심상
- ② 내 유년의 윗목 - 은유법
- ③ 해는 시든 지 오래 - 활유법
- ④ 찬밥처럼 방에 담겨 - 직유법

문 24. 다음 중 문장부호 설명이 잘못된 것은?

- ① 제목이나 표어에는 마침표를 쓰지 않는다.
- ② 열거할 어구들을 생략할 때 사용하는 줄임표 앞에는 쉼표를 쓰지 않는다.
- ③ 가운뎃점은 기준 단위당 수량을 표시할 때 쓴다.
- ④ 문장 안에서 책 제목을 나타낼 때 겹낫표를 쓴다.

[해설] 정답 ③

기준 단위당 수량을 표시하는 것은 빗금(/)이다. 예) 100원/개
가운뎃점은 열거할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쓰는 문장부호다. 그 묶음 사이에는 쉼표가 들어가야 한다.
예) 민수 · 영희, 선미 · 준호가 서로 짝이 되었다.

문 25. 외래어 규정이 잘못된 것은?

- ①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
- ②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 ③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 만을 쓴다.
- ④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정답 ③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 만을 쓴다. 이것은 음절 끝소리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외래어 표기법 제3항을 보면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만을 쓴다.

군무원 필기 + 면접 전문 대장부 학원
2019년 7월 26일 오후 2시, 2020 대비 군무원 개강 !

국내 유일 군무원 면접관 출신 교수님이 가르치는
군무원 면접 1차 전화 접수: 2019년 6월 26일 오후 2시부터
2차 전화 접수: 2019년 7월 12일 오후 2시부터
3차 전화 접수: 2019년 7월 19일 오후 2시부터
<http://www.daejangbu.com/> 02-849-7746



< 2019. 6. 22. 군무원 9급 국어 대장부 학원 국어 강의 적중 내용 확인 >

1번 2번 11번 17번 문제는 국어 이론서에서 모두 강의한 내용이며
이 문제들은 다른 강의들도 다 적중된 문제입니다.

2019 대장부 학원 국어 문제풀이 내용 적중 (2019년 군무원 기출 4번 문제)

10. 로마자 표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남산 - Namsan
- ② 불국사 - Bulguksa
- ③ 속리산 - Songnisan
- ④ 왕십리 - Wangsipli
- ⑤ 낙동강 - Nakdonggang



2019 대장부 학원 국어 문제풀이 내용 적중 (2019년 군무원 기출 4번 문제)

문 4. 다음 중 로마자 표기가 올바른 것만 고르시오.

김치 Kimchi 설날 seollal 왕십리 Wangsimni 벚꽃 beotkkot
불국사 Bulkuksa 속리산 Songnisan 대관령 daegwalryeong

- ① 김치 Kimchi 왕십리 Wangsimni 대관령 daegwalryeong
속리산 Songnisan 설날 seollal
- ② 설날 seollal 왕십리 Wangsimni 대관령 daegwalryeong
속리산 Songnisan
- ③ 설날 seollal 속리산 Songnisan 왕십리 Wangsimni
벚꽃 beotkkot
- ④ 설날 seollal 속리산 Songnisan 왕십리 Wangsimni
대관령 daegwalryeong

2019 대장부 학원 국어 4월, 5월 모의고사 내용 적중 (2019년 군무원 기출 6번 문제)

추가2. 다음 글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16세기에 편찬된 최세진의 『훈몽자회(訓蒙字會)』는 훈민정음 자음의 명칭을 한자의 음과 뜻을 이용하여 밝히고, 자음과 모음의 순서를 정리한 한자 교습서이다. 이 책에서 글자의 배열은 첫소리(초성)와 끝소리(종성)에 모두 쓰일 수 있는 여덟 자(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첫소리에만 쓰일 수 있는 여덟 자(ㅋ, ㆁ, ㆏, ㆑, ㆒, ㆓, ㆔, ㆕), 가운데소리(중성)에만 쓰일 수 있는 열한 자(ㅈ, ㅊ, ㅌ, ㄷ, ㄱ, ㅊ, ㅌ, ㅍ, ㅍ, ㅍ)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그 뒤로 자음과 모음의 운용 원리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즉 첫소리와 가운데소리를 합해 글자를 만드는 예(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7)를 보여주고 있고, 첫소리와 가운데소리와 끝소리를 합해 글자를 만드는 예(갸, 간, 갸, 갈, 감, 갑, 갸, 강)를 보여준다.

13. 다음 우리나라의 사전(事典) 편찬 순서로 올바른 것은?

- ㉠ 『조선어사전』 ㉡ 『표준조선어사전』
- ㉢ 『말모이』 ㉣ 조선어학회의 『조선말큰사전』

- ① ㉠-㉢-㉡-㉣ ② ㉢-㉠-㉣-㉡
- ③ ㉠-㉢-㉣-㉡ ④ ㉢-㉡-㉠-㉣

2019 대장부 학원 국어 4월, 5월 모의고사 내용 적중 (2019년 군무원 기출 6번 문제)

문 6. 한국어를 기술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닌 것은?

- ① 훈몽자회
- ② 한불자전(韓佛字典)
- ③ 말모이
- ④ 큰사전

2019 대장부 학원 국어 문제풀의 강의 내용 적중
(2019년 군무원 기출 7번 문제)

6. <보기>의 밑줄 친 단어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무엇인가?

< 보기 >

- ㉠. 할머니께서는 피곤하신티 고모가 가자마자 주무신다.
㉡. 어머니께 여쭙워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 저녁 내내 서재에만 계시던 할아버지께서 나오셨다.
㉣. 늦게 퇴근하신 아버지께서는 그제야 저녁을 드셨다.

- ① ㉠의 '피곤하신티'는 상대높임법에 해당하고, 전어말어미로 높임법을 실현하고 있다.
② ㉡의 '여쭙'은 주체높임법에 해당하고, 특수한 어휘로 높임법을 실현하고 있다.
③ ㉢의 '계시'는 주체높임법에 해당하고, 특수한 어휘로 높임법을 실현하고 있다.
④ ㉣의 '퇴근하신티'는 객체높임법에 해당하고, 전어말어미로 높임법을 실현하고 있다.

2019 대장부 학원 국어 문제풀의 강의 내용 적중
(2019년 군무원 기출 7번 문제)

문 7. 보기와 같은 높임법이 쓰인 것은 무엇인가?

<보기> 아버지께서 쓰시던 물건을 그 분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 ① 누나가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② 선생님은 제가 여쭙었던 내용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③ 아버지께서 제게 용돈을 주셨습니다.
④ 어머니께서 방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2019 대장부 학원 국어 교재 2권 p. 174 '특급품' 수록
6월 19일 모의고사 '특급품' 문제 적중
(2019년 군무원 기출 8번, 9번 문제)

특급품(特級品)

- 김소운 -

일어(日語)로 '가야'라고 하는 나무-자전(字典)에는 '비(價)'라고 했으니 우리말로 비자목이라는 것이 아닐까. 이 비자목으로 두께 여섯 치, 재다가 연륜이 고르기만 하면 바둑 판으로는 그만이다. 오동(梧桐)으로 사방을 짜고 속이 빈-들을 놓을 때마다 평평 하고 올리는 우리네 바둑판이 아니라, 이진 일본식 통나무 기반(基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비자는 연하고 탄력이 있어 두세 판국을 두고 나면 반면(盤面)이 얹어서 공보같이 된다. 얼마 동안은 그냥 내버려 두면 반면은 다시 본디대로 평평해진다. 이것이 비자반의 특징이다.

비자를 반재(盤材)로 진중(珍重)하는 소이(所以)는, 오로지 이 유연성(柔軟性)을 취함이다. 반면에 돌이 닿을 때의 연한 감촉-, 비자반이면 어느 바둑판보다 어깨가 마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무리 흑단(黑檀)이나 자단(紫檀)이 귀목(貴木)이라고 해도 이런 것으로 바둑판을 만들지는 않는다. 비자반 일등품 위에 또 한층 뛰어 특급품이란 것이 있다. 반재며, 치수며, 연륜이며 어느 점이 일급과 다르다는 것은 아니나, 반면에 머리카락 같은 가느다란 흉터가 보이면 이게 특급품이다. 알기 쉽게 값으로 따지자면, 전전(戰前) 시세로 일급이 2천 원(둘은 따로 하고) 전후인데, 특급은 2천 4, 5백 원, 상처가 있어서 값이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비싸진다는 데 진진(津津)한 묘미가 있다.

반면이 갈라진다는 것이 기약치 않은 불측(不測)의 사고이다. 사고란 어느 때 어느 경우에도 별로 환영할 것이 못 된다. 그 균열(龜裂)의 성질 여하에 따라서는 일급품 바둑판이 목침(木枕)감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 다음 지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비자는 연하고 탄력이 있어 두세 판국을 두고 나면 반면(盤面)이 얹어서 공보같이 된다. 얼마 동안은 그냥 내버려 두면 반면은 다시 본디대로 평평해진다. 이것이 비자반의 특징이다. 비자를 반재(盤材)로 진중(珍重)하는 소이(所以)는, 오로지 이 유연성(柔軟性)을 취함이다. 반면에 돌이 닿을 때의 연한 감촉-, 비자반이면 어느 바둑판보다 어깨가 마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무리 흑단(黑檀)이나 자단(紫檀)이 귀목(貴木)이라고 해도 이런 것으로 바둑판을 만들지는 않는다. 비자반 일등품 위에 또 한층 뛰어 특급품이란 것이 있다. 반재며, 치수며, 연륜이며 어느 점이 일급과 다르다는 것은 아니나, 반면에 머리카락 같은 가느다란 흉터가 보이면 이게 특급품이다. 알기 쉽게 값으로 따지자면, 전전(戰前) 시세로 일급이 2천 원 전후인데, 특급은 2천 4, 5백 원-, 상처가 있어서 값이 내리는 게 아니라 되레 비싸진다는 데 진진(津津)한 묘미가 있다.

반면이 갈라진다는 것은 기약치 않은 불측(不測)의 사고이다. 사고란 어느 때 어느 경우에도 별로 환영할 것이 못 된다. 그 균열(龜裂)의 성질 여하에 따라서는 일급품 바둑판이 목침(木枕)감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큰 균열이 아니고 회생할 여지가 있을 정도라면 형값으로 싸고 두경을 덮어서 조심스럽게 간수해 둔다. 갈라진 균열 사이로 먼지나 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단속이다.

1년, 이태, 때로는 3년까지 그냥 내버려 둔다. 계절이 바뀌고 추위, 더위가 여러 차례 순환한다. 그 동안에 상처 났던 바둑판은 제 힘으로 제 상처를 고쳐서 본디대로 유착(癒着)해 버리고, 균열진 자리에 머리카락 같은 희미한 흔적만이 남는다. 비자의 생명은 유연성이란 특질에 있다. 한번 균열이 생겼다가 제 힘으로 도로 유착·결합했다는 것은 그 유연성이란 특질을 실지로 증명해 보인, 이를테면 졸업 증서이다.

2019 대장부 학원 국어 교재 2권 p. 174 '특급품' 수록
6월 19일 모의고사 '특급품' 문제 적중
(2019년 군무원 기출 8번, 9번 문제)

문 8. 다음 중 문장의 배열이 알맞게 된 것은 무엇인가?

(가) 비자의 생명은 유연성이란 특질에 있다. 한번 균열이 생겼다가 제 힘으로 도로 유착·결합했다는 것은 그 유연성이란 특질을 실지로 증명해 보인, 이를테면 졸업 증서이다. 하마터면 목침같이 될 뻔했던 불구 병신이, 그 치명적인 시련을 이겨내면 되레 한 급(級)이 올라 특급품이 되어 버린다. 재미가 깨를 볶는 이야기다.

(나) 반면이 갈라진다는 것이 기약치 않은 불측(不測)의 사고이다. 사고란 어느 때 어느 경우에도 별로 환영할 것이 못 된다. 그 균열(龜裂)의 성질 여하에 따라서는 일급품 바둑판이 목침(木枕)감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큰 균열이 아니고 회생할 여지가 있을 정도라면 형값으로 싸고 두경을 덮어서 조심스럽게 간수해 둔다(갈라진 균열 사이로 먼지나 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단속이다.).

(다) 1년, 이태, 때로는 3년까지 그냥 내버려 둔다. 계절이 바뀌고 추위, 더위가 여러 차례 순환한다. 그 동안에 상처났던 바둑판은 제 힘으로 제 상처를 고쳐서 본디대로 유착(癒着)해 버리고, 균열진 자리에 머리카락 같은 희미한 흔적만이 남는다.

(라) 비자반 일등품 위에 또 한층 뛰어 특급품이란 것이 있다. 반재며, 치수며, 연륜이며 어느 점이 일급과 다르다는 것은 아니나, 반면에 머리카락 같은 가느다란 흉터가 보이면 이게 특급품이다. 알기 쉽게 값으로 따지자면, 전전(戰前) 시세로 일급이 2천 원(둘은 따로 하고) 전후인데, 특급은 2천 4, 5백 원, 상처가 있어서 값이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비싸진다는 데 진진(津津)한 묘미가 있다.



대장부

2019 대장부 학원 국어 문제풀이 강의 내용 적중
(2019년 군무원 기출 11번 문제)

11. 고유어 계열의 단어와 한자어 계열의 단어 중 어느 것 하나가 널리 쓰이면 표준어로 삼고 방언이던 단어가 널리 쓰이면 표준어 되는 경우가 있다. 다음 단어 가운데 표준어가 아닌 것은?

- ① 가루약
② 우렁쌈이
③ 멍게
④ 알타리무

2019 대장부 학원 국어 문제풀이 강의 내용 적중
(2019년 군무원 기출 11번 문제)

문 11. 다음 중 표준어와 비표준어 연결이 잘못된 것은?

- | 표준어 | 비표준어 |
|---------|-------|
| ① 총각무 | 알타리무 |
| ② 개다리밥상 | 개다리소반 |
| ③ 방고래 | 구들고래 |
| ④ 산누에 | 멧누에 |

2019 대장부 학원 국어 6월 14일 모의고사 문제 적중
(2019년 군무원 기출 13번 문제)

추가13. 다음 ㉠-㉤의 준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 | |
|----------|-----------|
| ㉠ 그렇지 않은 | ㉡ 만만하지 않은 |
| ㉢ 적지 않은 | ㉤ 변변하지 않은 |

- | | | | |
|--------|------|-----|------|
| ㉠ | ㉡ | ㉢ | ㉤ |
| ① 그렇잖은 | 만만찮은 | 적잖은 | 변변찮은 |
| ② 그렇잖은 | 만만찮은 | 적잖은 | 변변찮은 |
| ③ 그렇잖은 | 만만찮은 | 적잖은 | 변변찮은 |
| ④ 그렇잖은 | 만만찮은 | 적잖은 | 변변찮은 |

2019 대장부 학원 국어 6월 14일 모의고사 문제 적중
(2019년 군무원 기출 13번 문제)

문 13. 다음 보기의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제39항 어미 ‘-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적과 ‘-하지’ 뒤에 ‘-않-’이 어울려 ‘-찮-’이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 | |
|--------|--------|
| ① 당찮다 | ② 그렇잖다 |
| ③ 달갑잖다 | ④ 올곧잖다 |

2019 대장부 학원 국어 문제풀이 문제 적중
(2019년 군무원 기출 14번 문제)

추가3. ㉠~㉤에 해당하는 것 중, 맞춤법에 어긋난 단어가 포함된 것을 고르면?

<보기>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쓴다.

(순 우리말 합성어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것)

- ㉠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뒷말의 첫소리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 | | | |
|--------|------|-----|
| ㉠ | ㉡ | ㉢ |
| ① 나뭇가지 | 아랫마을 | 두렛일 |
| ② 벚가리 | 뒷머리 | 뒷입맛 |
| ③ 아랫집 | 잇몸 | 나뭇잎 |
| ④ 조갯살 | 텃마당 | 베갯잇 |

2019 대장부 학원 국어 문제풀이 문제 적중
(2019년 군무원 기출 14번 문제)

문 14. ㉠과 같은 사이시옷 구성은 무엇인가?

- | | |
|-------|-------|
| ① 시냇물 | ② 조갯살 |
| ③ 전셋집 | ④ 두렛일 |

2019 대장부 학원 국어 문제풀이 문제 적중
(2019년 군무원 기출 14번 문제)

하노라고 한 것이 이 모양이다.
공부하느라고 밤을 새웠다.

4. 다음의 밑줄 친 말 가운데 맞춤법에 맞지 않는 것은?

- ① 오늘 점심 때 우리 집에 들려라.
- ② 공공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 ③ 거리에서 행인이 차에 치였다.
- ④ 밤을 새워서라도 일을 마치세요.

2019 대장부 학원 국어 교재 2권 '관동별곡' 수록
국어 문제풀이 문제 적중
(2019년 군무원 기출 18번 문제)

제 와 보게 되니 有有情경도 有有情경한사, 毗盧로峰봉 上上상상
頭두의 올라 보니 그 뉘신고, 東東동산 태산이 어느야 높듯던
고, 魯魯國국 조분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넓거나 넓은 天天下하
엇지하야 적당 말고, ㉠어와, 더 디워를 어이하면 알 거이고, 오로
디 못하거니 내려가미 고이홀가, 圓圓통통골 7는 길로 獅獅子子峰
봉을 추자가니, 그 알피 너러바화 化化龍龍식 되여세라, 千千年年
老老龍龍이 구비구비 서려 이서, 晝晝夜夜의 흘러 내어 滄창海海에
니어시니, 風風雲雲을 언제 어더 三삼日일 雨우를 디련논다, ㉡陰음
崖崖에 이온 풀을 다 살와 내여스라, 磨磨訶訶衍衍妙妙吉길祥상 雁
安安문재 너머 디여, 외나모 빠근 닥리 佛佛頂頂窟窟 올라호니千
壽壽結結壁벽을 半半空공에 세여 두고, 銀銀河河水水 한 구비를 손

2019 대장부 학원 국어 문제풀이 문제 적중
(2019년 군무원 기출 14번 문제)

문 20. 다음 중 맞춤법이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 ① 밤을 새서라도 일을 끝마치겠다.
- ② 자꾸 밤새지 마라, 몸 축날라.
- ③ 밤샘 보람이 있다.
- ④ 몇 밤을 뜬눈으로 새웠다.

2019 대장부 학원 국어 교재 2권 '관동별곡' 수록
국어 문제풀이 문제 적중
(2019년 군무원 기출 18번 문제)

문 18. 다음 중 현대어로 번역이 잘못된 것은?

- (가) 毗盧峯(비로봉) 上上頭(상상두)의 올라 보니 그 뉘신고
- (나) 東山(동산) 泰山(태산)이 어느야 높듯던고
- (다) 넓거나 넓은 天下(천하) 엇지하야 적당 말고
- (라) 오르지 못하거니 내려가미 고이홀가

- ① 비로봉에 올라보니 그대는 누구이신가?
- ② 동산과 태산은 어느 것이 높은가?
- ③ 넓거나 넓은 천하를 왜 작다고 했는가?
- ④ 오르지 못했으니 내려감이 무엇이 이상하겠는가?

2019 대장부 학원 국어 교재 2권 '엄마 걱정' 수록
국어 문제풀이 문제 적중
(2019년 군무원 기출 22번, 23번 문제)

5. 이 시를 다음 <보기>처럼 바꾸어 썼다고 가정할 때,
고려했을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열무 삼십 단을 이고 / 시장에 간 우리 엄마 /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 엄마 안 오시
네, 배추 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 금 간 창틈으로 고요히 빛소리 /
빈 방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 아주 먼 옛날 /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 그 시절, 내 유
년의 율목

- ① '어머니의 힘든 노동'이라는 소재는 그대로 살려야겠지?
- ② 방 안이라는 공간에 초점을 두어 시상을 집약하는 것도 좋겠군.
- ③ 화자의 정서를 더 강조하기 위해, 화자 혼자 남겨지는 상황을 만들면 어떨까?
- ④ '어머니의 아픈 마음'을 표현하려 한 원시의 의도는 그대로 살려 써야겠어.

2019 대장부 학원 국어 교재 2권 '엄마 걱정' 수록 적중
(2019년 군무원 기출 22번, 23번 문제)

문 22. 다음 중 엄마의 고생을 나타낸 시어가 아닌 것은?

열무 삼십 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 틈으로 고요한 빛소리
빈 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율목

2019 대장부 학원 국어 문제풀이 문제 적중
(2019년 군무원 기출 24번 문제)

추가6. 문장 부호와 그 설명이 잘못된 것은?

- ① 쌍점 (:)은 쉼표의 일종으로 시와 분, 장과 절 등을 구별할 때 쓴다.
- ② 대괄호 ([])는 묶음표 안의 말이 바깥 말과 음이 다를 때 쓰인다.
- ③ 가운뎃점 (·)은 열거된 여러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낸다.
- ④ 줄표 (-)는 표제 다음에 해당 항목을 들거나 설명을 붙일 때 쓴다

2019 대장부 학원 국어 문제풀이 문제 적중
(2019년 군무원 기출 24번 문제)

문 24. 다음 중 문장부호 설명이 잘못된 것은?

- ① 제목이나 표어에는 마침표를 쓰지 않는다.
- ② 열거할 어구들을 생략할 때 사용하는 줄임표 앞에는 쉼표를 쓰지 않는다.
- ③ 가운뎃점은 기준 단위당 수량을 표시할 때 쓴다.
- ④ 문장 안에서 책 제목을 나타낼 때 겹낫표를 쓴다.

2019 대장부 학원 국어 4월 5일 문제풀이 문제 적중
(2019년 군무원 기출 25번 문제)

190405 군무원

12. 외래어 표기법에 관한 토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 ②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어야 하지. 그래야 기억하기 편해.
- ③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만을 써서 적어야 하는 것도 잊으면 안 돼.
- ④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어야 해.

2019 대장부 학원 국어 4월 5일 문제풀이 문제 적중
(2019년 군무원 기출 25번 문제)

문 25. 외래어 규정이 잘못된 것은?

- ①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
- ②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 ③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만을 쓴다.
- ④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